

인사말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



친애하는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첫번째로 출간하는 연구회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제1호에서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주신 회원들과 본회를 위하여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5대 회장으로서 지난 10년을 회고하건데 '91년 본회 설립 당시 실로 위성 불모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연구회가 주도하여 기필코 무궁화호 위성 제1호, 제2호를 잇달아 개화시키면서 20세기 말에는 미중유의 혹독했던 IMF 처지에서도 산·학·연·관의 협동으로 한해에 우리별3호를 필두로 하여 무궁화3호와 아리랑1호를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국내 기술력을 과시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새 밀레니엄에서는 부의 가치관이 과거 산업사회 개념과는 달리 지식정보화 사회의 신지식의 집중이 척도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면서 작은 지구를 한꺼번에 포용하는 우주에 바탕을 둔 위성통신산업이야말로 금세기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강점을 부각시키는 정보화 국책 사업으로서의 우위를 차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대량생산이나 자동화가 기업을 평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새 시대는 소량다품종과 지식화가 리드할 것이므로 위성통신 산업의 진가는 크게 기대가 됩니다.

최대 기업으로 알려졌던 GM사의 시장 가치는 MS 마이크로 소프트사보다 오히려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부가가치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5와 100 일 때 우주위성은 20000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 국내위성의 요소는 향후 15년 내 6개월이상 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풀어 가는데 지혜와 총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위성 발사기지와 위성전파 감시센터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허가를 준 저궤도 위성 오브컴과 글리벌스타의 소량 다품종인 다양한 휴대용 서비스가 금년부터 상용화 되어 GPS를 부가한 물류, 환경감시, ITS 등 국가 숙원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동화상 전송 규격의 초광대역의 위성망이 Ka밴드 중계기로 저렴하게 확대 보급 되어야 할 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하한 LEO, MEO, GEO 궤도라도 정부와 산업체는 상비조직을 신설하여 국운을 걸고 ITU 등 관련국들과 협상으로 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 하옵는 본회 고문님 그리고 친애하는 이사님과 회원 여러분!

금년에도 계획 추진하고 있는 한·일간 위성통신 Conference, EXPO 2000 위성산업전시회, 최근에 본회가 발족한 ITS 전문위원회의 각종 행사 그리고 증보 발간되는 회지 이외의 각종 사업들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수시 방문 하셔서 사업별 또는 전문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통우연을 만들도록 심기일전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 없는 증언부언 이나마 이로서 인사말로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0년 3월
회장 김광영